

# 세종도로 약사사 등 관통

## “보상문제 때문에 힘없는 사찰 쪽으로 변경” 강경대응

세종도로(제2 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과 지역사찰을 관통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에 자리한 약사사(주지 해안) 앞에는 '전통사찰 파괴하는 도로사업 중지하라, 대웅전 250m거리 설치 결사반대 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세종도로 성남구간이 남한산성 위로 지나가는데 대한 약사사(여래종 본찰) 측 항의 표시다.

세종도로는 서울 동부에서 행정 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까지 건립되는 왕복 6차선 도로 총 6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고, 7월 중 기본조사를 거쳐 노선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남한산성 구간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된다. 문

제는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각 사찰 인근을 지나 수평환경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약사사 대웅전에서 불과 250m 거리에 들어서 만덕 계곡, 남한산성 유원지와 약사사를 양분할 뿐만 아니라 영도사 50m, 백련사 150m, 덕운사 100m 등 사찰 주변도 관통한다.

약사사 측은 “도로공사는 1차 조사 때와 다르게 보상문제가 일차, 노선을 힘없는 사찰 쪽으로 변경했다. 5월 15일 생각지도 않은 고가설치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지 해안 스님은 “대웅전 750m 밖 성남외곽순환도로의 소음도 심한데 고가도로가 들어오면 더욱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각 사찰 뿐만 아니라 성남시, 여야 지역구의원, 주민 등도 반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도로공사 구간을 터널로 만들면 약 8km길이에 달하게 된다”며 “화재나 응급상황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긴급적 터널 구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지역구 의원들은 “계획안이 사실상 90%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입구 순환도로도 소음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시민이 많이 다니는 유원지, 등산로 한복판의 고가도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약사사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남한산성이 자리한 수정구 지역위원회도 13일 유원지 방문객을 상대로 설치반대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보조법어’ 등 월정사로 귀환

## 이철교씨 기증으로 고향찾아

1930년대 오대산 월정사에서 펴낸 <보조법어> <진각어록> <합허어록> 등 불교전적 6권이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돌아왔다.



70여 년 만에 월정사로 돌아온 불교전적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보조법어> 등 1937년과 1940년 월정사가 발간했던 불교전적 6권을 동국대도서관 前 사서과장 이철교 선생님이 6월 13일 기증해 왔다”고 6월 18일 밝혔다.

기증된 책들은 일본강점기 월정사가 출간한 책들로, <보조법어> <금강경>은 상원사 주지였던 보산 스님을 발행자로 한성의 창문사 인쇄소에서 1937년 간행됐다. <진각어록> <태고집>은 1940년 7월과 8월 월정사 주지였던 이종욱 스님을 발행자로 동산

리 월정사 보제사(普濟社)를 발행소로 표기했다. <합허어록> <나옹집>은 1940년 5월 한성도서에서 인쇄해 월정사에서 발행한 책이다.

월정사 관계자는 “보제사를 발행소로 표기한 <진각어록> <태고집>은 월정사수련원의 결사를 가능케 한다”며 “보조 국사의 수선사(修禪社), 보조사상의 정해결사 등의 법맥을 잇는 근간으로서의 월정사의 위상을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책을 기증한 이철교 동국대도서관 前 사서과장은 인사동 고서점과 현재방 등에서 구입, 소장한 고서 등 1만3000여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 교도소 첫 생전예수재 ‘화제’

## 대구교도소서 6월 16일 봉행



대구교도소에서 열린 재소자 생전예수재에서 스님들이 천수바라춤을 추고 있다. 왼쪽은 용연사 주지 상원 스님.

3년 만에 찾아온 음력 5월 윤달. 전국 사찰에서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봉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씻고 바른 삶과 수행의지를 다지는 생전예수재가 교도소에서 국내 최초로 열려 화제다.

대구교도소(소장 한재준) 불교분과(과위원장 상원)는 6월 16일 ‘제1회 참다운 나로 거듭나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교도소에서 일반적인 법회나 위문공연 외에 처음으로 열린 예수재는 500여 재소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진행됐다.

대구교도소 불교분과 위원장인 용연사 주지 상원 스님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은 이날 예수재는 법요식에 이어 관음의식, 발원문 낭독, 천수바라, 회심곡 답답이, 사찰학춤 순

으로 진행됐다. 상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소자 교화활동을 하면서 수감 중인 재소자를 위한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중 한재준 소장님의 법회 허락으로 열게 됐다”며 “재소자들이 예수재를 통해 살아 있을 때 참회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보시로 한층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도소 불심회 채형두 회장은 “재소자들이 예수재를 계기로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서 나가 올바른 행동을 남을 위한 배려로 열심히 살아가리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이상연 기자  
순법천 대구지사장

# 박승숙 인천구청장 “개인 신앙생활일 뿐”

## 인불총·종평위 항의에도 발뺌

“언론의 뒤통수를 맞아야 기독교 정식으로 규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등 종교편향 발언을 일삼아 박승숙 인천구청장(인천중부교회 장모)이 6월 13일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선일, 이하 인불총) 항의방문에서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청장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순안식)에 9일 공문을 보내 “특정종교 신봉이

유료 여차별 받는 결과”라고 사과하지 않은 바 있다.

항의방문에서 선일 스님은 “인천 지역에서만 유독 종교편향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 자연인으로 개인적 종교신념은 인정하지만 그럴려면 구청장직을 포기하고 신행에 전념하라”고 비판하며 공개사과 및 공식 사과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할아버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며 “5월 2

일 있었던 성서화축전 초청행사 발언은 개인적 신앙생활 연속선상에서 한 발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구청방안을 개선해 관내 종교단체 행사시 적극 협조하고, 종교차별예방교육과 주요 사찰 문화재 발굴 및 사찰방문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 “어린이포교법 알려주세요”

## 운문사 승가대학 요청으로 교육 열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200여 학인 스님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운문사 승가대학 어린이포교교육에서 특강하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영유아·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6월 15일 오전 7시부터 운문사 선열당에서 ‘제1회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을 실시했다.

동편 어린이청소년법회 교육지원팀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7시 입제식에 이어 포교부장 계성 스님과 동편 이사장 지현 스님의 특강, 동편 사업부 동편 사업부 정일훈 팀장, 최미선 사무국장 등이 현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과

불교레크리에이션 찬불동요 율동 강습, 특강 등을 진행했다.

지현 스님은 특강에서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계·정·해 삼학을 공부해 아이들에게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참법자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학에 이어 김현 정암사, 봉녕사, 동학사 스님들이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순법천 대구지사장

#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 조직 발족

## 전국 450개 종교시민단체·민주당 등 동참

불교계가 참여하는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 조직이 발족했다.

불교환경연대 등 전국 450개 종교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 4당이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범국민대책위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지나친 운하를 추진하지 않

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고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6월 27일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돈을 주워 모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 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세계불교법왕칭 초대법왕 一鵬尊者圓寂十三週忌追慕

# 일봉 서경보 존자 탄신 96주년 열반 13주기 추모 대제 만등불사



※ 1992년 세계불교 법왕칭을 설립하고 초대법왕으로 추대되어 온 세계 중생들을 제도하시면서 세계 최대 박사학위 세계 최다 저서와 세계 최대 통일기원사비 건립과 세계 최대 선필휘호로서 기네스북에 5관왕의 기록으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 봉행위원회

### 법왕칭 장학금 수여식

불기2553년(서기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음. 윤 5월 3일)

증명(부산 대각사) 고불 경우 큰스님

- 대 법 주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중정 인왕
- 법 주 법왕칭 최고위원 동봉
- 고 문 IAEWP총재 찰스메르시에카 박사
- 봉행위원장 세계불교법왕칭 최고위원 원각
- 집행위원장 재단이사장 담화
- 동원분과위원장 연합불교방송 사장 김소부
- 사 무 처 정지만, 이인애, 이정인

- 박사학위: 전 세계 각국 유명대학에서 126개 학위취득
-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사비 758개소 건립
- 저서: 문학, 철학, 종교, 한시 등 1,042종류 서적 50여만권 발행
- 157개국 5,300여 단체에서 세계법왕추대
- 112개국 1,044개 단체에서 존자칭호 추대

- 주 최: 일봉존자 탄신 96주년 및 원적 13주기 추모 대법회 봉행위원회
- 주 관: (재)세계불교법왕칭 평화재단, 일봉법왕문도회, 세계불교 고승총연합회
- 후 원: 법왕칭신문, 법왕승가대학, 법왕칭 문화복지재단, 불교일보, 법왕칭장학회, CBC108TV, 연합불교방송, 영문외교저널, 서울불교방송, 경기매일, 서울불교방송, 경기매일, (주)동광인터네셔널
- 일 시: 불기2553년(서기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음. 윤 5월 3일)
- 시 간: 추모제 오전 10시 ~ 12시 30분까지
- 장 소: (재)세계불교법왕칭 평화재단 제2 담화정사
- 주 소: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칭담화정사
- 연락처: 043)296-1081 / 총무원 02)3217-3217

※ 일봉 큰스님 원적 13주기에 참석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추첨합니다.